

# 多种언어환경과 한국어교육

중앙민족대학교 Piao Wenzhi

1. 서론
2. 多种언어사회에서의 한국어의 역할
  - 2.1 ‘도구적 역할’
  - 2.2 ‘의사소통적 역할’
  - 2.3 ‘문화적 역할’
3. 多种언어환경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多种언어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과 사용이 연결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多种언어환경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多种언어환경이란 한국어교수·학습과 한국어사용 환경이 단일언어가 아닌 多种언어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 즉,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가 多种언어 능력을<sup>1</sup> 지니고 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도 多种언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이다. 학습자의 多种언어 특징은 서로 다른 모국어화자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학습자의 모국어는 동일하지만 학습자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타나는데, 대개 한국의 언어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속하며,<sup>2</sup> 한국이 아닌 다른

<sup>1</sup> 여기에서 多种언어 능력은 多重언어 능력을 포함한다. 즉 多重언어 능력이 모국어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어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습득하였음을 뜻한다면, 多种언어 능력은 多重언어 능력과 함께, 모국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일정한 수행기능이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sup>2</sup> 한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동일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있을 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후자에 속한다. 한국이 아닌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대부분 동일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이미 모국어의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성인 학습자로서 모국어 외에도 제 2 언어, 제 3 언어를 학습하였거나 일정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는 모국어인 汉语 외에 제 2 언어(영어와 같은 외국어 또는 자기 민족어)를 학습하였거나 습득하였다. 한국어는 이들에게 제 3 언어 또는 제 4 언어가 된다.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 학습이 유아 시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 한국어 학습자일 경우 대부분 이미 2 중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 多種언어 능력의 소유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서 국가간의 다원적인 교류로 인하여 더 많은 지역이 다문화, 多種언어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 호주의 경우 자기의 민족 언어와 본국의 언어라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한국 본국에서도 국제 결혼으로 인한 1 가구 다민족 가족의 구성이 확산되고 있어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 인적 교류가 활발한 지금은 多種언어사용이<sup>3</sup>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등 대중 매체 영역에서 多種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나 회사, 시장,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多種언어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어 역시 이러한 多種언어사회의 일원으로 작용한다. 한국어의 사용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닌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국어로 표현된 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多種언어사회에 노출되어 있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중국어나 한국어, 영어나 기타 언어를 사용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편집된 교재나 사전 등 학습자료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교실에서 한 가지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로 설명하는 등 多種언어환경을 고려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교육평가, 교사양성 등 교육체계는 주로

---

있으나 소수 학습자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동일 모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sup>3</sup> 같은 공간 또는 장(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을 때 多種언어사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협의적 의미에서 단체, 가정, 몇몇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한 장에서도 多種언어사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단일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多种언어환경을 고려한 구성은 뚜렷하지 않다. 한국어교육에서 多种언어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多种언어사회에서의 한국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한국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多种언어사회에서의 한국어의 역할

多种언어사회에서 한국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어교육 목표와 관련된다. 즉, 한국어 교육이 왜 필요하나 하는 문제는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교육 대상인 학습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지만 대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그런데 교육의 목표와 학습의 목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목적은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자의 대부분은 취업이나 한국유학, 한국 내 체류 등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 말하자면 교수자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학습의 목적이 된다. 한국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목적이 일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즉,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며, 이는 목적인 일을 이루지 못할 경우 도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한국어 학습은 학습 자체에 머물고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이 끝나고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교육의 의의는 무색해질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며,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한국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방향 및 내용 구성 등 일련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보기에 위하여 우선 Hymes(Richards & Rodgers(2003:245))가 제기한 언어가 수행하는 기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구적 기능: 사물을 얻기 위한 언어 사용
- 2) 통제적 기능: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 사용
- 3) 상호작용 기능: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창조해 내기 위한 언어 사용
- 4) 개인적 기능: 개인적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사용
- 5) 발견적 기능: 학습하고 발견하기 위한 언어 사용
- 6) 상상적 기능: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언어 사용
- 7) 표상적 기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 사용

위의 내용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동을 위해 수행하는 언어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서 상호작용 기능과 표상적 기능, 개인적 기능은 언어를 의사소통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기능으로 이해되며, 통제적 기능, 도구적 기능은 언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외국어 사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발견적 기능, 상상적 기능과 같은 사고와 관련된 기능은 고차원적 언어 사용으로 외국어 사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음으로 자국어인 한국어의 언어사용영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도영(1998)과 심영택(1998)의 논의를 볼 수 있는데, 이도영(1998:56~63)에서는 언어사용영역을 ‘도구로서의 언어사용’,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사용’, ‘사고작용으로서의 언어사용’, ‘문화로서의 언어사용’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심영택(1998:152~178)에서는 위의 네 가지 언어사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언어사용의 다차원적인 존재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자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은 일반 언어가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자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사용영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도구적 역할’, ‘의사소통적 역할’, ‘문화적 역할’로 분류하고, 아래에서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도구적 역할’

여기에서 말하는 ‘도구적 역할’의 의미는 언어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배우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역할로 보고자 한다. 즉, 한국어 학습자가 취업이나 유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한다면, 이때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은 도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구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 어휘, 규범 문법 지식을 쌓아야 하며, 정확한 의미 파악 및 규범적인 표현과 같은 언어적 기능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교수·학습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KLPT 등)에서 높은 등급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며, 자기 소개나 수학 계획서 등 서류 작성이나 면접에 필요한 지식으로, 취업이나 한국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구적 역할’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에서 비롯된다. 만약 한국어의 사회적 수요가 없다면, 구체적인 취업이나 유학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학습자도 없을 것이며, 교육의 필요성마저도 약화된다. 이는 자국어로서의 국어교육에서 국어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구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의 도구적 역할은 학습의 강력한 동기가 되며 한국어 교육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나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 언어사용환경에 따라 한국어를 의사소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용영역이 다차원적인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어의 의사소통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 ‘의사소통적 역할’

한 가지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의사소통은 언어사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 되므로, 외국어의 교육목표는 거의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즉, 목표어를 사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하기 등등 다양한 소통행위를 하는

능력을 말한다. 모국어로서의 의사소통 기능은 직관적인 사용으로 초등교육 수준에서도 쉽게 완성되지만, 외국어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은 교수·학습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 교재 및 교수법에서 의사소통식 접근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모국어 화자처럼 문맥과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의사소통적용을 위한 언어사용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능으로, 목표어 화자와 같은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어를 학습하고 나서도 의사소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한국어의 의사소통 역할은 발휘되기 어렵다. 교육의 환경이 목표어사용 나라인 한국이라면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생활에서도 의사소통적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의 교육 환경이라면 의사소통적 사용은 그다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실 수업이나 학습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적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수는 근 15 만 명에 이른다. 베이징 소재 대학교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五道口, 望京 같은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흔히 만날 수 있어서 한국어를 의사소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어의 의사소통적 역할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목표어 화자와 같은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그 역할이 발휘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이 끝나고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권 생활 환경이 아닌 경우, 온라인에서 한국인 화자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2.3 ‘문화적 역할’

언어가 곧 문화라는 관점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은 곧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교류함으로써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다채로워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가 지니고 있는 언어적 특징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문화로 작용한다. 한글의 창제원리에서부터 한자어, 호칭어, 관용 표현, 대우 표현, 인사나 거절의 표현방식 등등, 음소, 어휘, 문장, 담화 차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함축된 문화는 학습자의 모국어와는 다른 이질적 문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언어문화를<sup>4</sup> 접하게 된다.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내용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한국어의 문화적인 역할의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국어가 수행하는 ‘문화적 역할’은 또한 한국어로 표현되는 문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문학이나 인터넷,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사고 방식, 생활 양식을 읽어 내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어의 문화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sup>5</sup>

한국어에 함축된 문화, 한국어로 표현되는 문화, 한국 사회가 지닌 문화 현상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지만, 한국어가 수행하는 ‘문화적 역할’은 학습자 개인에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적 수요에서 비롯되는 ‘도구적 역할’이나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역할’과는 달리, ‘문화적 역할’은 모든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학습의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과정전반에, 그리고 학습과 사용이 멈추어도 여전히 발휘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질 문화와의 접촉은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긍정적인 이해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거부감이나 불가사의를 줄 수 있다는 데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3. 多种언어환경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가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 ‘의사소통적 역할’, ‘문화적 역할’이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이유가 되며, 교육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중 어느 한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면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이 강조되거나 약화될 수 있을 뿐, 세 가지 역할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한 학습자가 유학을 가지 않게 된다고 해도 한국인과 만난다면 의사소통 할 것이며, 또는 한국 영화나

<sup>4</sup>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창간호에서 성기철(2004)은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중간에 위치한 언어문화 영역의 새로운 구축을 제안하였고’, 김대행(2003), 민현식(2004), 조항록(2004), 이미혜(2004) 등에서 한국 언어문화에 주목한 논의를 하였다.

<sup>5</sup> 문학작품이나 대중매체가 통·번역을 통해서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번역된 내용이 전체적이 아닌 일부분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작과 번역작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드라마,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이 끝나고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 또한 한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라는 목표어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는 학습과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습한 내용 이상의 한국어 사용이 필요하므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국어의 다양한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이라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과 같은 상호작용의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의사소통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어의 ‘의사소통적 역할’도 수행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된 학습은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은 교수·학습자체에 머무르기 쉽다. 교육은 한국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체제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한국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은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의 ‘도구적 역할’, ‘의사소통적 역할’, ‘문화적 역할’을 전제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도구적 역할’은 사회적 수요에서 비롯되며, ‘의사소통적 역할’과 ‘문화적 역할’은 개인적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규 대학의 한국어 전공과정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교육평가, 교육자료, 교사 등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국어능력시험 통과를 필수 또는 권장하며,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국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거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문화, 多種언어사회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이미 한국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어와 문화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언어문화 속에서 한국어의 생명력은 한국어 사용에 있으며, 한국어가 수행하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가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 못지 않게 ‘의사소통적 역할’, ‘문화적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多種언어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어의 사용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과 유학을 통해 나타나는 ‘도구적 역할’, 한국어 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적 역할’, 학습과 사용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화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역할은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며, 다문화, 多種언어사회에서 한국어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학습이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대행(2003), 「한국어 교육과 언어문화」,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남성우 외(2006),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제 1 권 제 1 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2009), 「언어 습득 및 문화 관련 이론의 동향」, 『국어교육연구』 제 24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1-118.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연구」, 『선정어문』 제 26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33-150.
- 박영순(2001), 「학습자 언어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제 12 권 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 12 권 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 제 1 권 제 1 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2008), 「다문화사회에서의 언어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년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심영택(1998), 「다차원적인 언어사용의 존재와 갈등 양상 연구」, 『선정어문』 제 26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51-179.
- 윤희원(2010),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 교육 I』,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이도영(1998), 「언어사용영역의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 1 권 제 1 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전은주(2008), 「다문화 사회와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년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조향록(2004)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 1 권 제 1 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Richards & Rodgers(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전병만 등 역(2003),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Vivian Cook(1994),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김지영 역(2000), 『제 2 언어 학습·교수론』, 형설출판사.

朴文子( PIAO WENZI )

中国, 北京市中关村南大街27号

中央民族大学外国语学院韩国语系

E-mail: [chinamoon01@hanmail.net](mailto:chinamoon01@hanmail.net)

Tel : 86-10-6893-1800 (연구실)

86-1391-116-9099 (손전화)